

# 민주 “尹, 아무일 없었다며 국민 모욕… 내란사태 희화화”

## 현재 탄핵심판 변론 비판…“달 그림자 언급, 자다가 봉창”

### 4대 그룹 초청 경청 간담회…“트럼프 2기, 민·관 중지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통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노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국제 통상 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히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 그날 밤 계엄군의 난동은 신기루였다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면 형법에 협박죄는 왜 있나. 협박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 왜 처벌하나”라며 “미수죄 역시 미수에 그치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인가 왜 처벌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또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아무 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변론에서 윤석열의 거짓말

행진이 계속됐다”며 “이런 극악무도한 내란 세력에 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악마의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달 그림자를 언급했다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표현”이라며 “이 와중에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내란범의 말이나 옮기려고 정치인이 됐는지,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 아닌, 산 위에서 가끔 출몰하며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는 산당(山黨)”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면서 “제가 보기에 트집 잡는 것을 목표로만 삼는 해적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경청 간담회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재하고 “국제통상 문제로 이렇게 국민이 걱정하는 일이 과거엔 없었던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 안전하게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는 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또 “과거 중진국 입장에서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히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제는 민간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들어서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장, 윤장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건 HMG경영연구원장 등 4대 그룹 관계자와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

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당 차원 자체 개헌안 마련”

### 다음주 특위 출범…“권력 개편·균형발전 등 논의”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당 자체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우원석 국회의장에게도 국의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에 대해서 제어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은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경기 평택 고덕변전소 현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자체가 87년 체제 이후 여러 사회 변화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헌법 전체를 손대려면 너무나 많은 논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정치 체제 부분이라도 손질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비판 포용해야” 목소리 높이는 비명계 3金

김동연 “최 대항 탄핵 반대”  
김부겸 “민주 생명력은 다양성”  
김경수, 민주당 복당 절차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계 3金(金)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 속에 당내 대권 구도에서 우위를 점한 이 대표가 실용주의를 앞세워 ‘우클릭’ 행보로 정치권 이슈를 주도하자 일각에서 “우클릭” 행보로 정치권 이슈를 주도하자 일각에서 김동연 지사는 5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나와 이 대표의 실용주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진보의 가치와 철학을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해 푸는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면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노동서면합의로 주 52시간 상한제 초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등 실용주의 행보에 나선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당내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도 “안정성을 해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비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당에 대한 비판을 이 대표가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김 전 지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비판 정도는 충분히 받아내야 당 지지가 올라간다”며 “민주당 생명력은 포용성, 다양성, 민주성”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앞서 “총선 당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임 전 실장은 지난 대선 결과와 관련해 이 대표가 부족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통합과 포용의 필요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는 “민주당이 품을 넓혀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생긴 상처받은 분들을 끌어안아야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대선에서 이기겠나”라며 “정치인뿐만 아니라 탈당한 당원들도 함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다만 임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제기한 ‘대선 패배 책임론’에 대해서 “(대선 패배에)저의 책임도 있다”며 “그런 평가보다는 다가올 대선에서 어떻게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경남도당에 복당을 신청하고, 해당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선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